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 본격 추진

전주시, 내년 12월까지 완산교까지 500m 구간 전통문화거리 조성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의 관광효과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이달 중 주민협의체 구성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 12월까지 전라감영로 완산교까지 500m 구간을 전통문화거리로 조성하는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중앙동과 풍남동·노송동 등 구도심 일원 약 143㎡(43만2575평)에 총 1056억원이 투입되는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마중물사업이다.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이 완료되면, 한옥마을과 풍남문, 풍남문~풍패지관 역사문화의거리, 전라감영(복원), 전라감영로 전통문화거리로 이어지는 새로운 전통·역사관광 축이 구축돼 전주관광의 외연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시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는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라감영부터 완산교까지 500m 구간의 폭 15m 도로에 보행자가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한 보행로를 설치하고, 주변 전통식당과 고미술, 한방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전통문화거리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기존에 추진된 특화거리 조성사업과는 다르게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협의체를 먼저 구성하고, 역량 강화 교육 및 참석자들이 좀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퍼실리테이션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경관협정을 통해 개인 소유의 건축물의 외장과 색채, 옥외광고물(간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쇠퇴일로에 있던 구도심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활성화된 지역인 한옥마을이나 영화의거리 방문객을 구도심 전역으로 확산시켜 구도심 전체의 균형재생을 도모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도시재생으로 인해 원

주민들이 임대료 상승 등을 이유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업들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가장 먼저 추진되는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에 이어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13개 마중물사업(182억원)과 31개 지자체사업(643억원), 4개 중앙부처협업사업(231억원)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합의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며 "쇠퇴한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전주 구도심을 아시아 문화심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선정 잇따라

평화동 미소플 '어르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덕진동 덕진플에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등

전주시민들의 생활 속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작은도서관들이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의 요청지로 거듭나는데 힘이 실리게 됐다.

전주시는 올 들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총 1억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평화동 미소플 작은도서관은 올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미소플 작은도서관은 계층별·분야별 문화강화를 진행하고, 텃밭 일구기와 단지주변 환경정비 등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및 확장을 통해 커뮤니티 공간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덕진동 덕진플에 작은도서관과 평화동 전주 작은도서관, 중화산동 철야나루 작은도서관 등 3개 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선정됐다. 이들 도서관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파견 강사를 지원 받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효자동 금호 작은도서관과 송천동 꿈나루 작은도서관, 삼천동 꿈드림 작은도서관, 송천동 송천뜨란채 작은도서관, 인후동 인후비전 작은도서관 등 5개관은 전주교육지원청이 주관한 '2017 학교 밖 학교! 방과 후 마을학교' 운영 위탁기관에 선정됐다. 5개 작은도서관은 독후활동 및 인형극 놀이, 보드게임, 초등학생 대상 블록로봇 창의 교실, 중학생 대상 전주의 정신을 품은 하브루타 수업 등을 운영한다.

나아가, 시는 올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공간나눔' 사업에 선정돼, 작은도서관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인문독서 도입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 50개소에 총 6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일상 속 책 읽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삼천동 전북문화사관 도서관과 효자동 휴먼시아 아이리진 작은도서관은 올해 전주시 은두레공동체 사업에 선정돼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강화와 작은도서관 연계 자연체험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아내가 대출받았다' 상습폭행 70대 벌금형

아내가 대출받았으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5일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70,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6년 4월 12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자신의 가게에서 아내 A씨(64)를 아내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0일 뒤에도 아내에게 자신 몰래 대출을 받았으며 폭력을 3차례에 걸쳐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폭행했고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우산 쓴 채 세월호 보는 추모객

인양된 세월호 육상가치를 앞둔 5일 오전 목포신항에서 추모객들이 반잠수선에 선 적대 있는 세월호를 보고 있다.

'진드기 매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증 주의보

전주시보건소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해야"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가 봄철을 맞아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봄철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고, 외출 후 목욕하기와 옷 갈아입기, 기피제 사용 등 진드기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SFTS는 주로 4월부터 11월까지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작은 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는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총 339명의 환자 중 73명이 사망하고, 주로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농촌지역 고 연령층의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 보다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또,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과 구토·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진드기 매개질환 발생에 대비해 방역대책 및 역학조사반을 가동해 의심 증상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음주운전' 전주시 공무원 입건

전주시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5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전주시 6급 공무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10시 26분께 전주시 삼천동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97%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로 밝혀졌다.

/김민근 기자

김제 실버테니스대회 참가 70대 심근경색으로 사망

현장에 구급차 한대도 없었다

지난 30일 김제시에서 치러진 실버테니스대회에 참가한 70대가 몸을 풀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참가자가 몸을 풀던 중 쓰러졌지만 대회장 주변에는 응급처치할 수 있는 구급요원이나 구급차가 한대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날 김제시장배 전북 이순테니스대회에 참가한 이모씨는 대회 시작을 앞둔 10시 36분께 몸을 풀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주변 참가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10분만에 도착해 인공 호흡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알려졌다.

심근경색의 경우 환자가 쓰러진 직후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다면 생존 확률이 매우 높아지지만 대회장 근처에는 의료진과 구급차가 전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감수를 하려는 체육 단체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단 대회장에 응급처치 전문인력이나 구급차를 배치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없다.

전북체육회 관계자는 "관련법이나 전북도 조례 어디에도 생활체육대회장에 구급차를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통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회 주최 측이 인근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 자발적으로 구급차를 배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의 상황에 대비해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교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내에서 다양한 아마추어 동호인 체육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한 현장 구급인력의 보충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근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